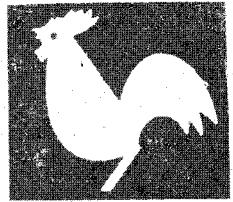


대한양계협회 소식



육계 입추 중단조치 전국에 파급 - 제3, 4 회 육계분과 위원회 개최 -

구정이후부터 육계가격이 생산비이하의 선에서 훨씬 밀도는 불황이 장기적으로 계속될 예상속에서 본회 육계분과 회원들은 지난 3월 25일, 4월 18일 두차례에 걸쳐 회의를 개최하고 불황타개의 근본대책으로 무기한 입추중단에 관한 결의를 채택하였다. 이에 따라 전국의 지부, 분회, 단지, 계우회를 주축으로 하여 전국의 육계생산자들의 입추중단이 광범위하게 실시되고 있다. 이어 4월 13일 농수산부에서 하달된 불량육계 및 육계사료 생산판매에 관한 공문에서는 육계사료는 78년 3월 실적이내로 생산량을 억제도록 강력히 조치하였으며 금후 육계사료판매는 허가부화장의 초생 추계통 보증서의 수량에 의해서만 판매토록 지시함으로써 입추조절이 좀더 적극적 실시되어야 할 것이다.

제 10-1회 육용계경제능력 검정실시예정

본협회는 10-1회 육용계경제능력검정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적극 출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1. 검정기간 : 1978. 6. 16~8. 11
2. 검정장소 : 본회 검정소(김포소재)
3. 출품종류 : 1구당 720개 (2 Box)
4. 출품료 : 1구당 50,000원

5. 출품의뢰서마감 : 1978. 5. 15(월)
6. 접수처 : 본회 지도조사부
7. 종란수집기간 : 78. 5. 22~24일
8. 부화기간 : 1978. 5. 25~6. 15
9. 77년도 추천에 의하여 도입된 신 규계종은 의무적으로 검정에 출품하여야 함.

제 13회 산란계 경제능력검정

입추완료

본회가 실시하는 제13회 산란계 경제능력검정은 7개 농장에서 출품된 16개 구의 종란 부화가 끝나, 4월 5일 입추를 완료했다.

전국 부화분과회원 회의 개최

초생추가격 시장추세에 맡기도록

지난 4월 15일(토) 오후 1시 본회 회의실에서 전국부화분과회원회의가 개최되었는데 이 자리에서 ① 초생추 출하가격을 조절함이 없이 현재대로 시장추세에 맡기며

② 업계의 정화를 위해 스스로 부조리를 제거하는데 적극 참여할 것을 결의하고 폐회 됐다.

본회, 초생추 출하수수조사 및 무허가 부화장 파악작업 착수

본회는 정확한 통계자료를 확보함으로서 양계산업의 추세 및 전망을 정확히 파악하고 아울러 현재 문제가 되는 무허가 부화장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전국의 지부를 중심으로 조사작업에 착수했다.

대한양계협회 소식

이는 그 누구에게도 피해를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업계의 정화를 위한 건설적인 작업인만큼 전국 양계인 여러분은 적극적인 협조가 있기를 바란다.

안양분회 주최, 제13회 양계 학술 세미나 성황.

-업계정화노력을 위한 결의문도 채택-

본회의 안양분회(분회장: 박성원)가 주최하는 제13회 양계 학술세미나가 기관장, 및 관련업체인사 및 150여명의 양계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안양시민회관에서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박성원 분회장이 「생산자들이 단합하여 업계를 생산자 주도하에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하자」는 요지의 인삿말에 이어 박근식(본회이사, 안양가축위생연구소 계역과장)씨는 축사를 통해 안양분회의 학술



〈좌〉 인삿말을 하고 있는 박성원 분회장
〈우〉 축사를 하고 있는 박근식 계역과장

세미나가 연륜을 거듭하여 13회가 되었음에 찬사를 보내고 이제 양계업계도·전업(專業) 양계인들만이 뿌리를 내리므로서 튼튼하고 건전한 사업풍토가 조작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전 회원들은, ① 국민식생활향상을 위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생산에 전력을 다하며 ② 생산조절과 아울러 소비자 보호를 위한 유통질서 확립운동을 전개하며 ③ 유관업체와 연대관계를 강화하고 ④ 부화업계는 초생추생산을 조절할 것과 불량추생산을 즉시 중지할 것을 촉구하고 ⑤ 저질사료를 생산하는 일부업체의 작성을 촉구하며 ⑥ 질병박멸에 전력을 다한다는 6개사항의 결의문을 채택한 후 강의에 들어갔다.

먼저 박달규 강사(한국산업훈련원 원장)의 「대망의 80년 대에 도전할 축산인의 자세」라는 주제의 강연이 있은 다음 김순재 강사(안양가축위생 연구관)와 원종대 강사(대성미생물 상무)의 「만연되고 있는 양계질병의 대책」, 김진의 강사(퓨리나농장장), 김영옥 강사(퓨리나사료 영업부장)의 「양계산업을 중심으로 한 80년대의 축산업 전망」에 대하여 슬라이드 상영 및 강의가 오후 6시까지 있었는데 대다수의 참석 양계인들이 끝까지 자리를 지키며 질문을 던지는 등 진지한 태도로 강습회에 임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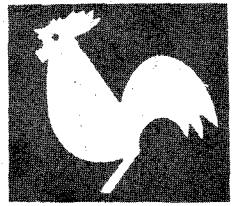
해외양계시찰단 편성

세계일주시찰반 26명

동남아시찰반 13명 신청

양계인들이 직접 선진외국의 양계산업을 시찰하여 전문을 넓히고 기술을 도입하기 위한 해외양계시찰단이 본회 주최로 편성이 끝났다.

세계일주시찰반에는 한국유리브리드 협의회원 전원이 참가 신청을 하였으며 이들은 서울출발→홍콩→아테네→로마→마드리드



리드→파리→쥬리히→후랑크후르트→코펜하겐→런던→뉴욕→워싱톤→마이아미→리오데자네이로→마이아미→시카고→바파로→로스엔젤레스→호놀룰루→도쿄→오사카→서울로 코스를 정했는데 체류기간은 약 2개월, 출발은 7월 중순경이 된다. 동남아반은 서울→싱가포르→홍콩→타이페이→오사카→도쿄→서울로 코스를 정했으며 체류기간은 약 2주일 예정이다.

스페인, 포루투갈지부 감별사 파견 요청

— 본회 7日 감별사 해파시험
실시 —

스페인, 포루투갈지부(지부장: 최재영)에서는 우수한 한국 감별사 5명을 긴급 파견해 줄것을 전문으로 본회에 요청해 왔다.

이에 따라 본회 감별분과위원회(위원장: 남일우)는 4월 7일 본회에서 선발시험을 실시하고 4명을 선발하였으며 부족되는 1명은 5월 27일 대구에서 실시될 예정인 1978년도 제1차 갑종 및 고등감별사자격시험에서 선발할 계획이다.

78년도 회원증 및 대의원증 발급

— 발급기간 5. 1~5. 6 —

본회에서는 양계업자중 회원 및 비회원에 대한 구분을 철저히하기 위해 5월 1일부터 각도별로 회원증을 발급한다.

또한 동기간동안 78년도 대의원에 대하여도 아울러 대의원증을 발급한다.

본회 부산·경남지부 육계 분과회의 개최

본회 부산·경남지부는 지난 4월 21일 지부 회의실에서 육계분과회의를 개최하고 다음 사항을 결의하고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입추를 계속 중단하기로 한다.

결의 사항

1. 우리는 불량추를 입추하지 않겠으며 생산하는 부화장이 발견될 시는 즉각 사적 당국에 고발한다.
2. 3% 이상의 건강한 병아리를 여분으로 공급할 것을 요구하며 만약 여분이 부족 할 때는 3% 까지의 병아리를 여분으로 간주하여 대금 결제를 한다.
3. 허가된 부화장이면서 동시에 본회에 회원으로 가입된 부화장에서만 분양하는 병아리만 입추한다.
4. 계통보증서가 첨부된 병아리만 입추한다.
5. 상기 4개항의 조건이 구비된 병아리 가격을 외국계(하바드기준) 200원, 국산계(한협 603) 150원 선에서 입추한다.
상기 5개항의 조건이 관철될 때까지 우리 부산·경남지부 육계 사양가 일동은 무기한 입추중지를 선언한다.